

## 구심점이 필요한 건축계

### Architecture Needs a Strong Centripetal Force

이상해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Lee Sang-Hae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는 “자기 분수에 응하여 아무런 속박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주 본체와 합류하고, 몸은 세속에 있어도 마음은 늘 자연과 함께 놀고있다는 신묘한 경지”를 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어느 정도 깊이가 없이는 물위에 배를 띄울 수 없다. 마당의 조그마한 웅덩이에 물 한 잔을 부어놓으면 거저씨는 뜬다. 그러나 잔을 띄우려면 가라앉으니 그는 물과 잔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까닭이다….

가까운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세 끼니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면 돌아올 때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나 백리를 가는 이는 하룻밤 묵고 올 마련으로 쌀가루를 넉넉히 가지고 가야 한다. 또 천리를 가려는 이는 석달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모르고, 작은 해(年)는 큰 해의 길이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줄을 아는가? 아침에 돌아 오면 버섯은 낮과 밤의 교체를 모르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교체를 알지 못한다. 버섯이나 매미는 살아있는 기간이 짧다….

「소요유(逍遙遊)」의 내용은 물론 “상대(相對)구역을 떠나 절대(絕對)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는 구만리 창천을 꿈꾸며 유유히 날아오르는 장자(莊子)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소요유」의 내용은 사람들의 편협한 관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한번 형성된 관념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묘하게도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변신을 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보아온 세계만을 보려고 하고, 해오던 것만 고집하려고 한다. 그래서 「장자」의 「소요유」는 현대 물질문명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투영시켜 삶을 새롭게 생각해 만들고, 또 무한경쟁으로 치달고 있는 현대사회를 허전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소문에 의하면 국내 건축설계업 분야가 외국 건축가들에게 곧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꿈과 희망이 가득찬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는 시점에 들리는 반갑지 않은 소문이다. 능력에 따른 무한경쟁을 하자는 알팍한 뜻을 표면에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달픈 세상살이, 시시비비(是是非非) 작은 문제에 연연하는 우리 건축계, 설계업계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환의 시기일수록, 합심하여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할 어려운 때일수록, 생각나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구심점이다. 건축적 고뇌를 도닥겨주며 건축을 이끌어 가는 중심되는 힘, 생각, 능력, 집단이 필요하다. 구심점은 세상과 타협을 요구할 때, 새로운 현실이 닥칠 때,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는 근원, 뿌리가 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건축계가 안고 있는 난제중의 하나가 정통성의 확보이다. 기성에 대한 비판이란 사실 정통성을 지닌 구심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질 때 빛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발전과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모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구심점이 자리잡고 있는 기존에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 위한 외침

은 진보이며 그것은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한다. 그런데 구심점이 없는, 기존의 무엇이 없는 상황에서, 진보의 표방이나 새로운 경향의 모색은 어쩌면 비밀 대상도 없이 울부짖는 몸짓이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것은 허탈감을 자아내게 한다. 건축설계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이 땅에 세워지는 건축이 허기(虛飢)에 찬 서양건축가들의 건축실험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건축계는 필요없는 것에 힘을 헛되이 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 건축관련 단체들은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정보를 집적할 필요성 때문에 건축정보센터같은 것을 각기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시켜 놓은 단체도 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건축단체들의 작업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서로 중복되는 일들을 따로 따로 제각기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적,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말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건축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작업을 할 때 훨씬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안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있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상업건축잡지가 아닌 건축단체들의 잡지만 해도 그렇다. 지금 우리 건축계 현실에서 건축단체들의 잡지는 이미 기관 지적인 성격을 벗어난지 오래이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그 각각의 잡지들을 보면 성격이 비슷한,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흡족한 잡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 한데 모여 의견을 모아 건축단체들이 건축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수준높은 하나의 잡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까? 이런 하나 하나의 사안들을 실제로 풀어 나갈 수 없다면, 건축계 일각에서 거론하기도 하는 건축단체들을 합쳐야 한다는 것과 같은 큰 사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방안도 없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현실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 건축계에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이야기하지는 것과 다르다.

사실, 이러한 현실과 연관하여 생각해 만드는 좀 더 심각한 일면이 우리 건축계에 상존하고 있다. 많은 건축가들은 객관적으로 고상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자신이 비취지길 원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설계 수주과정에서는 체면도 염치도 양심도 없이 돌격하여 드디어 수주에 성공하고야마는 건축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수주하여 그 결과로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축가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예술과 밥통, 이것이 우리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양면성이다. 질 좋은, 오래도록 서 있을, 수준높은 건축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도록 건축가들이 노력할 때가 닥쳐왔다. 구심점을 형성할 때가 되었다.

영어에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가지는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값싼 물건을 사기를 원하면 상품의 질은 양보해야 한다. 반대로 질이 좋은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값을 더 지불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을 양보해야 한다.

건축가가 사회적으로 그 직분을 인정받으려면 예술과 밥통, 그 어느 쪽을 양보해야 될까? 우리 속담에 좋은 일을 한 껌에 겹하여 한다는 뜻을 가진 "임도 보고 뽕도 따다."는 말도 있고,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본다는 뜻의 "뽕 먹고 알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 아닐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뽕 먹고 알 먹고, 겉으로는 버젓한 예술가이고, 남이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는 추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축가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개방화의 시대일수록, 정보화의 시대일수록 그러한 양면성의 소유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보화시대가 되면 뽕수록, 원하던 원하지 않든, 건축에 관한 모든 기록은 남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건축의 실명제이다. 자료가 개방되지 않던 시대에는 "뽕 잡는 것이 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실명제 사회에서는 남이 무어라든지 실속을 차리며 일을 이루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집약된 힘을 모아 일을 해야 할 때이다. 구심점이 필요한 때이다. 구심점은 혼돈의 상황에 규율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다. 그 규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규율이다. 그것은 서구중심주의를 넘어가는 첫 발걸음이다.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름은 헛되이 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면, 그 필요에 따라 우리 건축계는 한번 형성된 편협한 관념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오던 것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변신을 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다. 구민리 창천을 주유할 구심점이 필요하다.